

(주)충남도시가스

동종 업계 최초로 이룩한 무재해 10배

가 스업계 최초로 무재해 10배(4,673일) 달성의 쾌거를 이룬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주)충남도시가스로 대전 시내 중심부를 가로 흐르는 대전천과 유등천 사이 가스화 단지에 자리하며 SK-ENRON 계열사 소속으로 부지 11,958평, 12개동 연면적 2,598평의 건물에 대표이사 리크 티오 안유를 비롯하여 141명의 임직원이 대전광역시 전역 및 인접한 논산시 두마면 일원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공급하는 일반 도시가스업체이다.

1987년 12월 1일 가스공급을 개시한 이래로 금년 8월말 현재 공급배관 500여Km 공급수용가 26만세대로 대전광역시 총세대수에 58%가 넘는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전시공, 안전공급, 수요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매년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제정 시행하며 금년은 『체계적 안전관리 SYSTEM 정착으로 무재해 10배 목표달성』

을 지난 7월 9일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인간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한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주)충남도시가스는 1988년 7월 1일 사업장 무재해 목표 10배로하여 선포·개시한 후 달성한 동종업계의 최초라는 금자탑을 이룩한 것이다.

95년도에는 무재해 동탑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주)충남도시가스는 1996년 6월 21일에 통상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2000년 11월 9일에는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후 드디어 2001년 9월 19일에는 제8차 가스안전축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우뚝서는 최고의 안전기업으로 탄생하였다.

무재해 10배 달성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연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여 이룩한 결과이다.





▲ 무재해 10배 달성



▲ 직원 안전교육

무재해운동 주요 실천사항 으로서는

하나, 전직원 안전회의 실시

안전(시공)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개선, 현장의 경험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직접 토론과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1회 전 직원 및 시공회사 관리자가 참석하여 발표, 토론, 안전정보를 상호교환 제공함.

둘, 아차사고 사례발표

회사업무 및 생활속에서 발생된 아차사고 사례의 공개를 장려하여 간접경험에 의한 위험예측으로 행위자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고 공개된 사례를 통해 제도적 모순을 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의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 하기위함.

셋, 요통예방 건강체조실시

매일아침 업무시작전 요통 예방체조(5가지유형-각8회)를 팀장 주관하에 시행하여 경직된 몸과 신경을 풀어주고 요배부 근육의 유연성향상과 척추강화에 기여 중량물 취급 및 현장관리시 요통예방과 더불어 산재예방에 기여.

넷, 산소결핍 재해예방

순찰 및 점검에 임하는 각 차량마다 1대이상의 산소농도 측정기를 구입, 지급하여 당해 작업장내 산소결핍 여부를 사전에 측정하여 규정농도 이상시 작업에 임하게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 또는 질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기여.

다섯, 현장관리 및 작업과 관계되는 부서의 작업복을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전복으로 착복케하여 의복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작업공구 또한 정전기 제어용 방폭공구를 사용하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주)충남도시가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목표로 무재해 15배를 설정하여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안전분야를 비롯하여 품질 및 환경분야까지 폭 넓은 종합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다부진 계획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눈을 돌려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설정해 부단히 노력하여 무재해운동의 모범사업소로 만들어 간다는 장단기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충남도시가스는 무재해 목표 달성을 떠나 모범적인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써 산업사회의 안전의식을 조기 정착하는데 선두업체가 되길 기원한다. 